

전국 돌부처 인터넷에 모였다

한국석불문화원 전문 홈페이지 개설

2백37기 정보제공...英·日·中語서비스

전국 산하에 흩어져 방치되고 있는 미지정 돌부처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4일 국내최초로 석불관련 인터넷 사이트(www.stonebuddha.com)를 개통한 한국석불문화연구원(회장 이근후, 이화대 교수) 홈페이지에서 한국인의 영인된 귀의경 경주 남산의 돌부처 87구와 전국에 산재한 1백50여구의 돌부처를 만나볼 수 있다.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있는 돌부처들은 석불문화연구회가 13년간 매일 1회 직접 정기답사를 통해 자료를 구축한 것이어서 풍부한 정보와 높은 신뢰도를 제공하고 있다. 석불검색서비스는 유형, 무형, 국보, 보물, 지방, 향토유적 비지정, 기타문화재로 분류하여 지방별

로 찾아볼 수 있고 쉬운 설명으로 이끌고 있어 친경및 답사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주고 있다.

각기 문화재는 형태와 설명, 사진, 관련 설화와 시, 악도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앞으로 석불회는 돌부처자료를 동양화 서양화 관화로도 제작하여 올리겠다는 계획이다.

불교문화유산의 보고인 경주남산은 부처를 선방골 천룡굴 냉골등 26개 골짜기로 분류하여 돌부처를 소개하고 있으며 한글, 영문판 경주남산지도도 제공해 처음 찾는 사람도 소상하게 문화유산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운문사, 군위일원의 돌부처, 경주남산의 석불, 용문, 운강석불등 국내외 석불 관련 답사자료와 매달 두번째 수요



전국에 산재한 석불을 검색할 수 있는 석불회 인터넷 홈페이지.

를 먼저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찬란한 우리 역사속에 주종을 이루는 불교미술, 거기에 돌부처의 오묘한 미소를 계속 보존하고 역사적 의미를 되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석불문화연구회는 4일 출판문화관에서 1백여명의 회원이 참가한 가운데 '99 활동보고대회'를 갖고 올해 답사한 28기의 석불을 중심으로한 슬라이드쇼를 개최했다. 이어 소설가 최성각씨의 '내팔방기'를 주제로한 초청강연이 진행됐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20세기 불교 그 현장 그 인물 <10> · 10

한국불교 제종단 통합 시도

한국불교의 외형상 큰 특징은 종파불교이다. 신라 때 5교9산을 시작으로 종파는 11종까지 번창하다 선교 양종으로 통합되고, 조선조 무종(無宗) 시대를 겪다가 일제때는 1911년 사찰령 치하에 어용종단인 원종에 맞서 임제종이 설립되면서 이후 한국불교는 과거 종파불교의 양상을 재현하게 되었다. 62년 불교재산관리법 아래서 18개 종단을 구성한 후 다시 88년 전통사찰보존법으로 바뀌면서 현재의 다종파 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현재 80여 개로 추정되는 종단이 이름만 다를 뿐 종조·소의

1975 11-18



지도자 없고 이해 상충 무산

경전·종지·수행체계 등에서 차이가 없이 난립하고 있다는 점. 정략한 수량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이합집산의 현실은 이미 종파불교가 아니라는 우려의 소리가 나오고 있다.

해방이후 단일종단으로 조계종이 계속되어오다. 62년 불교재산관리법의 제정으로 인사와 재산 관리에 대한 승인권이 정부에 귀속되면서 종단등록이 출몰이 일어났다. 62년 12월4일 조계종을 시작으로 72년 4월20일 비구니종단 보문종 등록까지 18개 종단이 탄생했다. 선종계열로 조계종, 교종계열로 태고종, 법화계열로 천태종(관음종으로 개칭) 한국법화 대한법화 일승종, 밀교계열로 진각 진언종, 화엄계열로 원효 총화 화엄종, 마적계열로 법상 마적 화엄종, 정토계열로 정토종, 약사계열로 천화불교, 비구니종단 보문종 등이다.

불교재산관리법 아래서 조계종을 제외한 17개 종단들은 몇차례의 통합을 시도했다. 70년대 초 여론에 자극받아 이 운동에 태고종이 앞장섰다. 수차례 협의의

전사범 이후 80여개 종파 난립 문패 다를뿐 종지·종조 같아

거쳐 결국 75년 10월 태고 총화 원효 법상종 등 4개 종단이 나서서 한국불교 제종통합 발기위원을 결성하고 이어 11월18일 서울 신문회관에서 한국불교통합위원회 결성법회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사찰재산의 후속조치가 거론되면서 무산됐다. 또 사상·계열별 종단간의 통합작업도 진행됐다. 법화계가 특히 활발했고 밀교 마적계도 모색했으나 끝내 수포로 돌아갔다.

통합운동이 결실을 맺은 것은 재산권 문제와 종단간의 이해 상충등이 큰 걸림돌이지만, 뚜렷한 지도자가 없는 점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고 전통사찰보존법이 대체 입법된 1988년부터는 당시 기성 종단 대표들이 우려했던 현상들이 현저하게 자각받아 이 운동에 태고종과 창종이 우후죽순처럼 줄을

이었던 것이다. 그것은 '종단난립' 그 자체였다. 교세 또한 여타의 친목단체에도 비견할 수 없는 미약한 종단들이 앞 다퉈 불교종단임을 자처하고 나선 것인 것이다. 불교재산관리법 폐지 직후 가장 먼저 창종된 종단은 대구 보덕사에서 출발한 아세아정토불교 한국총본사 법안종이다. 이어 일승종에서 분파된 대승종이 창종했고, 뒤이어 재가종단 불승종이 창종했다. 이어 일불선교종 대승불교연맹, 태고종에서 분파된 법륜종이 창종하는 등 1988년 한해동안 무려 9개의 종단이 생겨났던 것이다.

신생종단은 기존의 소속 종단에서 의견대립이나 파벌형성에 따른 내부로 갈라져 나온 후 창종을 선언한 종단들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불교의 난맥상과 심각한 후유증을 낳고 있다. 인맥에 따라 탈종 분종 창종까지 이어진 이들 신생 군소종단들은 이합집산에 다름아니었기 때문이다.

위영란 기자 (yryui@buddhapia.com)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상량

석굴암 본떠 16국사 봉안...내년 5월 완공

한마음선원 대구지원(지원장 황계)은 12일 오후2시 신축법당(대구시 수성구 중동) 상량식을 거행했다.



신축중인 한마음선원 대구지원.

98년11월 착공한 신축법당은 대지627평 연건평668평의 지하1층 지상2층 규모로 SRC구조(철골철근콘크리트)와 전통한식을 조화시킨 건물로 되어있다. 완공은 부처님오신날에 맞추어 2000년 5월이 될 예정이다.

지붕에는 가마에서 구운 황금색 도자기와 3만6천여장이 사용되며 지붕중앙에 진리를 상징하는 봉탑이 세워져 새천년의 비전을 제시하게 된다. 신축지원은 대소법당과 강당을 동시에 개방할 경우 최대 3천 명이 한꺼번에 법회를 볼 수 있는데다 교통요지에 있어 도심교외의 새로운 명소가 될 전망이다. 이윤호 기자 (yhlho@buddhapia.com)



한국적 관음사 문화회관 조성법회에 각계인사가 테이프 절단식을 하고 있다.

日 관음사 문화회관 낙성

장의시설·납골당 갖춰

일본 오사카 시내 코리아타운에 현대식 한국사찰인 관음사문화회관(관장 원연)이 건립돼 본격적인 복지도교에 나섰다. 5일 열린 관음사문화회관 낙성 법회에는 서울 백양사방장(前조계종종정) 대정 백양사주지 박철원 지민련복지회장(지민련부총재) 우근민 제주도지사 허문도 前통일원장관 등 한국 불자 200여명과 운향규 주오사카총영사 홍성인 민단 오사카간담관 관음사 신도 등 현지인 500여명이 동참했다.

관음사 문화회관 건립은 지난 94년 일본인 요시무라스님의 제의로 시작돼 363평의 부지를 확보해 지상9층 지하 3층의 연건평 1080평 규모로 만 1년 공사 끝에 낙성됐다. 1층은 법당 2층은 장의식당 3층은 요사채이며 4~5층은 문화행사장 6~9층은 납골당으로 이용된다. 낙성법회에 앞서 4일 열린 자리온 법회의식과 법당 부처님 봉불 점안식은 대연스님(일본 고려사 관장)의 집전으로 5백여 신도들이 동참한 가운데 봉행됐다. 최현규 일본지사장 김원우 기자

대구불교회관 재추진

사원련 내년사업 발표

대구사원주지연합회(회장 원병)의 신년 사업계획이 확정됐다. 신년 사업계획서는 5개의 법회개회와 불교대구회관 건립재계, 불교대구교육원과 합창단등 부설기관 운영활성화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회는 성도절기념법회(1월14일)와 정월대보름달맞이 방생법회

(2월19일) 대구광주사원연 합동법회(미정) 부처님오신날 봉축법회 동창(5월11일) 생대계복원을 발원하는 토기방생법회(5월중) 등 5개로 확정됐으며 불교대구회관 건립 재계를 위해 공사현장에 임·법당과 사무실을 설치하고 모금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나가기로 했다. 同연합회는 연합회기금 조성 7천 만원 등 총3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이윤호 기자 (yhlho@buddhapia.com)

구미 신라불교 초전지

기념관 아도모레원 기공

백용성주사 유훈실현후원회(회장 한명옥)는 7일 도문스님(대각회 이사장)등 4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경북 구미시 도개에서 신라불교 초전기념관 아도모레원 건립기공식을 개최했다. 유훈실현후원회는 아도모레원을 목조 33평으로 건립한다. 김원우 기자

안국사 군불자회 창립

육군 제7516부대 1대대 안국사는 4일 軍불자회 및 후원회 창립 법회를 봉행하고 초대회장에 최태량씨(경주 삼포삼밭대표)를 추대했다. 同불자회는 매 주 토요일 정기법회를 개최하는 것을 비롯 월1회 현역·예비군 합동법회와 분기별로 후원회원이 참석하는 통합 법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윤호 기자

당신은 본래 청정하고 신성한 존재입니다. 자신을 바꿀 수 있는 멋진 길이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파타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합장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TEL: (02)396-2736 H.P. 016-228-2358

용국사 영혼의 쉼터 (법당식 납골당) 국내 최초 건립

납골당에도 명당이 있다

"영혼의 쉼터가 왜 명당인가"

- ◆ 보물 373호, 472호로 지정된 1300년 고찰터
- ◆ 사방이 병풍을 둘러친듯 영산의 명당지
- ◆ 건평 200평 대법당에서 평생동안 부처님 공전에서 영생불사한다
- ◆ 조석예불과 日晡(사시) 마지막공양을 영전에 올리며
- ◆ 향시 대법당에서 기도, 동경, 염불을 모실 수 있다
- ◆ 제사, 불공, 49재를 의식할 수 있다
- ◆ 평생관리 허가증 발급 ◆ 24시간 순찰경비

불자의 평생소원 법당식 납골당 드디어 공개 영혼의 쉼터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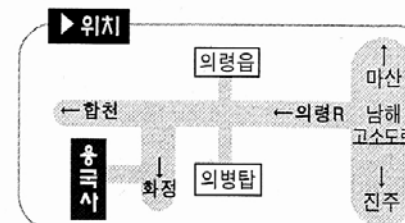
동양최대 3백3십3불 노천 관음보살 봉안지

유골탑: 옥석 2단(1단: 유골안치 2단: 개집, 염주, 경전등 소장)



위패(향목) 옥석2단함 영전(향목)

용국사 버스 운행표 (일요일 휴무)	
· 부산 한아름 예식장 앞(사직동 고속버스터미널)	08:30 출발
· 창원(창원역전 앞) 09:50 출발	
· 마산(마산역전 앞) 오전 10시 출발	
용국사 도착 10시 30분(영혼의 쉼터)	



문의 및 연락처 (0555)572-3233, 3533 경남 의령군 의령읍 하리 산 852

효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충이 따를 수 없다
효는 가정에 근본 충은 민족에 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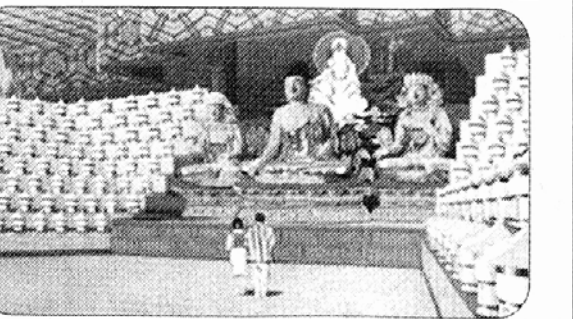
"생전에 못다한 효도 사후에 마지막 기회"

기공식 특별기념

안치·예악 접수중

납골함+영전+위패+평생관리=350만원(1기당)

안치 및 예악
기공식 특별기념으로 200명 선착순 1기당 175만원
사망한 유골, 타지역유골을 즉시 법당에 안치할 수 있다



건평 200평 대법당에 안치할 납골당 내부전경